



영천신문

영천전문장례식장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 편인히 모시겠습니다!

054)332-4000 영천10앞 · 도동고개

제214호 2017년 8월 28일 월요일(음력 7월 7일)

www.영천신문.com

대표전화 054-332-2400 Fax 054-335-6600

이상한 예산집행, 편법인가 불법인가

영천시 문화체육과, 시민·의회 모두 속였나?

영천시(시장 김영석)가 목적도 불분명한 사업에 감금이 예산집행을 일삼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사업계획당초 시민 공론화도 거치지 않은데다 특정한 우상화 만들기 특혜라는 비난에서 거짓보고로 의회까지 능란한 예산집행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영천시 문화체육과(과장 손동열)는 영천시 신령면 연정리 182-1 일원 1,920㎡의 부지에 390㎡(120평)규모의 철근콘크리트 및 기와(1층 사무실과 전시관, 2층 강학 공간)로 된 '유림재현관'을 15억원의 예산을 들여 건립하고 있다.

그런데 이 예산의 출처가 불분명하다. 해당부서 당초 이 사업 건립계획에 따르면 시비 6억원과 자부담 9억원 등 총 15억원이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영천시 예산서에는 올해 본예산 6억원(시비)과 제1회 추가경정 9억원(시비) 등 15억원 전액 시비로 명기돼 있다. 자부담 9억원이 모두 시비로 둔갑한 것이다. 특정사안에 대한 특혜 시비가 일수도 있는 대목이다.

여기에다 해당 부서는 의회에 허위보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과는 이 사업 의회 보고과정에서 도비 6억원과 시비 6억원 그리고 자부담 3억원(합계 15억,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예산서와는 다른 영터리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확한 예산 제원을 밝히지 않고 의회를 능란한 형태라는 지적이다.

더 이상한 것은 바로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항목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회계법상 사용하지 않는 용어지만 언어 그대로 해석

한다면 상위 기관이 내려준 돈(교부금)인데 특별히 조정할 수 있는 예산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자문이다. 즉, 이 사업에 경북도가 직접 예산지원을 할 수 없자 다른 항목(사업)으로 6억원의 예산을 내려주고 영천시가 대신 '유림재현관 건립'에 6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다.

다시 말해 해당 관·항·목을 속이는 편법에 예산집행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도비를 지원받기도 전액 시비로 속여 예산서에 기재할 수밖에 없었다는 일각의 해석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본지 예산요구서 확인요청에 기획예산부서는 "그런 문서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불법인지 편법인지 아니면 회계장부 조작인지는 더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다.

문제는 이것뿐만 아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이다. 해당부서 관계자들의 말에서부터 이사업의 불필요성이 제기됐다. 일방적으로 경북도와 특정인의 요구에 의해 주민이나 지역유림의 의견수렴 없이 선심성 퍼주기 예산 사업에 불과하다. 해당부서 관계자는 "주민의 견은 전혀 없었으며 도비가 편성되어 내려오니 어쩔 수 없이 시비를 붙여 진행하는 사업이다"고 밝혔다. 또 완공 후 운영계획조차 세워져 있지 않아 사업의 허구성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이같은 사업의 구체성을 시도의원들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다. 한해련 도의원은 예산이 집행돼 진행이 되고 있는 본 사업을 두고 "예산이 신청되었습니까?"라며 오히려 등문서답을 했고, 일부 시의원들조차 사업비 전액이 시비로

집행되고 있는 사실조차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문화체육과 의회보고=특별조정교부금 15억(도비6억, 시비6억, 자부담3억))

이를 두고 지역 한 시민단체에서는 "탐욕이 도를 넘으면 화를 부르는 법이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또 "현재 임고서원에도 선비 및 유림재현 체험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목적도 명분도 없는 곳에 그것도 하필 현재 경북문화융성위원장의 할아버지인 송계한택선 선생의 서당이 연결한 땅(소유자 사단법인 송계선생기념사업회)에 유림재현관을 건립하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 단체는 "지난해에도 '송계학술대회'와 '조선선비유림장' 명목으로 2억 1천만원의 도비를 받았다가 '송계'라는 인물에 대한 평가도 권력자에 의한 자의적이란 시중여론으로 무산돼 예산 반납을 한 전례가 있었던 사업이다"면서 "이번에 또 송계선생의 손자인 경북도 문화융성위원장(한명동)이 관련된 감금이 예산 집행에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면서 분개했다.

한편, 영천시는 이번에 건립하는 유림재현관을 신령면 연정리 송계선생의 서당에 인접한 사)송계선생기념사업회 소유 1,920㎡의 부지에 건립한다. 또 전액 시비 15억원을 들여 390㎡(120평)규모 2층 건물을 내년에 완공해 부지는 기부채납으로 받고 전체 시설물을 20년간 송계선생기념사업회에 위탁해 관리한다고 의회에 보고했다. "그 이후에는 별도로 생각해본 바가 없다"고 해당 부서 관계자는 말했다.

장지수 기자

이번엔 닭에서 DDT 초과 검출



닭 8,500수 전량 폐기 유통물량 회수조치

DDT 기준치 이하검출로 계란 유통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던 영천 도동의 해당 농가에서 이번에는 닭에서도 잔류 허용치를 웃도는 DDT성분이 검출돼 이미 출하 확인된 닭에 대해 긴급 회수조치에 들어갔다.

농식품품질관리원 영천사무소와 영천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5일~17일 농립축산식품부가 살충제 부적합 세부 52개 농가를 검사한 결과 경북 경산과 영천 두 곳에서 DDT성분이 확인됐지만 모두 기준치이하로 계란 유통에는 지장이 없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하지만 농식품부와 경북도는 지난 23일 앞서 계란에서 DDT가 검출된 경산과 영천의 해당 농가의 닭을 도축해 검사한 결과 경산의 박 모씨 농가에서는 0.453mg/kg, 영천 이 모씨 농가 0.410mg/kg의 DDT가 기준치(0.3mg/kg)보다 높게 검출돼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살충제 전수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52개 농장에 대해서만 검사를 실시하려던 계획을 바꿔 전국의 모든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검사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농식품부는 "계란 전수조사 과정에서 DDT가 검출된 경산과 영천 농가에서 시료 채취한 12마리의 닭에서도 모두 DDT가 검출됐다"면서 두 농가의 닭고기는 지난 23일부터 출하를 중지시켰으며, 영천에서 출하된 882수에 대하여도 식약처와 해당 시군에 통보해 소진 잔량에 대해서도 전량 회수조치 지시를 내렸다.

경북도 관계자는 영천 도동의 이 모씨 농가의 닭은 2년 전 이미 800여수가 유통돼 소진된 것으로 분석하고, 또 지난해 5월에도 882수가 경남의 한 식품회사에 출하돼 현재 문경의 G도축회사에서 도축된 후 대구 등 일부로 유통되거나 자체 폐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농식품부도 지난 23일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전국 모든 산란계 농장에서 출하하는 닭고기(노계)에 대해 도축시 DDT 등 농약 잔류물질 검사를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장지수 기자

(주)대엘레미콘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유하로길 48
전화: 054)335-6010, 팩스: 054)335-6014

지역 건설 산업을 선도하는 '레미콘' 제조 전문 기업
대엘레미콘은 늘 시민들과 함께 합니다.

(주)대경레미콘 054) 955-7700
경북 고령군 쌍림면 쌍쌍로 618-47

(주)대영레미콘, (주)대영아스콘 055) 532-8620
경남 창원군 대지면 미산길 3-24

대경골재(주) 054) 955-7534
경북 고령군 쌍림면 쌍쌍로 618-47

영천시의회 제186회 임시회 개회-제2회 추경(안)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박보근 의원 선임 김영모 의원, 총무위원회로 변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임된 박보근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의 결의를 다졌다.

영천시의회(의장 김순화) 제186회 임시회의가 28일 오전 개회돼 다음 달 5일까지 9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핵심요지다. 지난달 22일 정부추경에 이은 후속 경북도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일자리 관련 추경이 주 목적이다. 집행부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540억원, 특별회계에서 1억9천만원을 각각 증액 보고해 전체 예산은 당초보다 541억9천만원 늘어난 6천843억원이다. 또 하수도특별회계는 17억원, 상수도특별회계도 29억9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다.

이날 본회의장에는 김영석 시장과 조남월 부시장, 하기태 행정자치국장 등을 포함해 관계공무원 등 80여명

이 자리해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김순화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이 시민들을 위해 적재적소에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게 편성됐는지 깊이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했다.

의회는 이번회기 첫날인 28일 회기결정,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이어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 6명(총무위원회=김찬주·전종천·허순애, 산업건설위원회=박보근·이상근·정연복)을 선임하고 위원장에 박보근, 간사에 김찬주 의원을 각각 선임한 후 제1차 본회의를 마쳤다.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에 선임된 박보근 의원은 이날 인사에서 먼저 자신을 예결위원장에 선임해 준 동료의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한 뒤 “이번 추경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이 되도록, 또 당초 집행부 추경 목적에 부합되면서 연내 추진 가능한 사업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면서 동료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 의회는 회기 2일째부터 내달 4일까지 휴회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및 예결위 추경예산(안) 종합심사 등 각종 상임위활동을 거쳐 다음날인 5일 오전 제2차 본회의에서 그동안 각 상임위와 예결위활동으로 심사한 각종안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 산회하게 된다.

한편 의회는 이날 1차 본회의에서 지난 모석종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인해 총무위원회 의원숫자가 1명 줄자 상임위 의원숫자(총무위원회 4명, 산업건설위원회 6명)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 총무위원회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앞서 김영모 의원은 의회 사무국에 현재 자신의 소속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직 사임을 정식으로 의회사무국에 제출한 바 있다. 따라서 이날 의회는 총무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해 김영모 의원을 만장일치로 선임해 총무위원회 의원수(5명)를 산업건설위원회 의원수(5명)와 균형을 맞추었다.

장지수 기자

추석맞이 운전자금 200억원 지원 중소기업에 활력 불어넣는다!

영천시는 자금수요가 급증하는 명절 추석을 맞아 중소기업의 기업경영에 해소를 위해 200억원 추친규모로 추석 대비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으로 추석 전에 체불임금과 미결제 대금 등을 해소시켜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일반 대출금리 중 3%를 1년간 이자보전하며, 영천시 관내 소재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 건설업 등 8개 업종을 대상으로 업체당 3억원 한도로 대출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시는 자금의 균등한 배분과 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회 연속 이자보전 지원업체는 다음 1회 신청 제한 규정을 올해 신설했다.

다만, 최근 인구감소에 따라 인구 늘리기에 기여한 기업과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영천시 스타기업에 기간제한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신청·접수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영천시청 홈페이지에 등재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항공기업을 치과(330-6034) 방문접수하면 일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영천시는 올해 7월까지 156개업체에 438억원을 융자추진했으며, 이에 대한 이자보전금으로 상·하반기 총 15억원 정도 지급해 중소기업 경영 안정과 기업 투자유도 및 일자리 창출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아울러 기업에 즉시 해소를 위한 기반시설 정비사업 등 다양한 기업지원 사업 추진 및 기업에로해소 위한 기업에로 청취단 활동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이용기 기자

시민회관, 대규모 인원 대관행사 불법주차 몰살 주민, “성숙된 시민의식 나 자신부터 실천 해야”

지난 11일 오후 영천 시민회관에 1,000여명이 참여하는 영천축협 전이 용대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로 영천시청 주변 이면도로에는 불법주차로 인해 인근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시민회관 뒤 인근 주민 A씨는 지난 11일 오후 “우선 주차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려 했으나 이번 행사로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자신의 차량을 뺄 수가 없어 일을 제때보지 못했다”며 불만을 토로 하고 영천시에 강하게 항의했다.

당일 시민회관 앞 도로에는 이번 행사에 참여한 축협 조합원으로 보여지는 수십대의 차량들이 영천시민회관 앞 도로양쪽과 후면상가 등 이면도로에 불법주차를 했다.

이에 대해 영천시 교통행정과 한 담당은 “이같은 민원으로 당일 행사장 인근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계도 차원에서 불법주차 스티커와 홍보물을 붙였으나 실제 단속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시민회관 관계자는 “시민회관 대관 시 행사 주최 측에 차량 주차문제를 안내는 하고 있지만 잘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

이다”면서 “행사 주최측도 이 문제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여기에 대해 행사를 주최한 영천축협 한 관계자는 “이번 행사도 불법주차 때문에 시민불편이 있었던 줄은 미처 몰랐다. 앞으로 이같은 대규모 행사시 저희 조합원에 게 사전 안내를 충분히 하고, 주민 불편이 없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쏟겠다”면서 양해를 부탁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또 “향후 저희 조합은 기초질서 준수에 앞장서 솔선수범하고, 올바른 시민의식을 함양하는데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갖겠다”고 약속했다.

영천시민회관 스타홀은 791명 수용 규모의 공연시설로 매년 수용인원을 초과한 많은 단체에 대해 행사를 갖고 있다. 지난 한해 총151회, 올해는 8월 현재 76회 행사를 가졌으나 대규모 인원 행사는 매년 10여회 이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손훈익 기자

과속무인단속카메라, 설치지점 따라 제한속도 제각각

운전자, “일관성 없는 교통안내표지판”



영천시 화북면 영천-청송간 국도 35호선 화북삼거리 도로변에 과속방지를 위한 속도제한 도로표지판이 단속카메라 지점과는 무관하게 엉터리로 설치돼 있다는 운전자들의 지적이다.

지난 23일 지역 주민 A씨(60, 영천시)는 “이 도로 화북면 화북삼거리 화북면사무소 앞(청송에서 영천방

향) 도로에 과속 방지를 위한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는데 카메라로부터 전방 500M 앞에는 60km/h, 150M앞에는 40km/h로 표시돼 있어 의도적인 함정단속이 아니냐”는 불만을 터뜨렸다.

특히 A씨는 “이 무인단속카메라 안내 표지판이 설치지점에 따라 제각각 제한속도 표시가 일관성이 없

어 운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하소연으로 본지에 제보했다.

지난 23일 오후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지점 무인단속카메라를 안내하는 표지판이 전방 500m 지점과 150m 지점에 두개의 교통안내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다. 단속 카메라로부터 500m 지점 앞에는 제한속도 60km, 150m 지점에는 40km로 이중으로 설치돼 운전자들이 식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영천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관계자는 “해당 지점 교통안내표지판에 제한속도 표시가 다르게 된 것에 대해 영천시청 관계부서에 교체를 요청했으나 아직 처리가 안된 것 같다. 다시 교체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영천시 교통행정 관련 부서는 “과거 경찰로부터 대상 표지판 철거요청이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해당 구간은 40km/h로 경찰서와 협의해 빠른 시간에 현장 답사 후 운전자들의 혼란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손훈익 기자

우범지역 강변공원 산책로, “이제 안전합니다”

영천시·영천경찰서, 시민안전에 발빠른 대처

본보가 ‘금호강 강변공원 산책, 낭패 당할 수 있다.’ 보도(8월11일자. 213호 면)와 관련해 영천시와 영천경찰서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발빠르게 해당 지역을 순찰(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양 기관의 강변 우범지역 해

소 대책에 따라 시민들의 금호강 일대 산책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변모할 전망이다.

영천시는 본보 보도이후 영천강변공원 영록교에서 해당 지역까지 전체구간에 대해 제초작업을 계획하고 지난 17일 해당지역 일대의 제초작

업을 우선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천시는 지난 17일까지 문제 지역 및 일대에 대한 제초작업(잡풀 제거, 대나무 베기)을 완료한 후 본지에 “향후 지속적인 관리로 시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해왔다.

또 영천경찰서도 지난 11일 19시경 본지 보도에 따른 현장을 확인하

고 시민 산책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경찰서 관계자는 “관할지구대와 자율방범대의 협조를 받아 해당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편안하고 쾌적한 시민 산책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천시는 매년 읍·면·동과 전부서 및 관계기관에 협조를 받아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내년 조사는 이달 8월말까지 기초수요

조사 후 현장 실사를 거쳐 9월말까지 사업대상을 선정할 예정으로 있다.

영천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문제 지역이 내년 방범용 CCTV 수요 조사에 포함될 수 있도록 영천시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손훈익 기자



스마트폰으로 보는 인터넷 영천신문

출향인 서경수씨, 고향서 47년만에 첫 나눔 봉사활동 '포은나눔공동체', 앞으로 정식 법인 설립 계획



20세에 고향을 떠나 서울서 건설업을 해오던 지역 출향인이 47년만에 고향을 찾아 지역 나눔봉사 활동을 펼쳤다. 서씨는 앞으로 매주 지역에 내려와 이와 같은 나눔을 실천할 계획이다.

가칭 포은나눔공동체(회장 서경수)는 지난 25일 오전 11시 영천다나눔센터에서 지역 어르신 100여명을 모시고 무료 급식(점심)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영천 야사동이 고향인 서씨가 영천을 떠난 후 47년만에 돌아와 지역에서 펼치는 첫 봉사실천행사다.

이날 무료급식을 위해 서 씨는 점심식

사 국수 41박스과 과일, 과자, 떡과 바다로션, 라면 등을 어르신들께 선물로 전달했다. 그리고 남은 물품(국수 39박스 등)은 나자렛집, 용평마을, 마야병원, 북안희망의 등지, 영천시 장애인복지관 등에 각각 배분됐다.

이날 음식 준비는 영천한마음봉사단(단장 박금숙) 회원 10명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서경수 회장은 "고향을 떠나 지 47년 됐다. 고향에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너무 즐겁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매주 금요일 다나눔센터에서 무료급식을 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서 씨는 앞으로 가칭 포은나눔공동체란 정식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 함께 참여한 서 회장의 지인 권 모씨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서 회장은 지난 7월부터 지역 나자렛집, 용평마을, 마야병원, 북안희망의 등지, 영천시 장애인복지관 등에 과일, 국수 등의 물품을 제공하기 위해 주3회 정도 영천을 방문하고 있다"고 전했다.

손흔익 기자



'꽃으로 때리지 말라면서 꽃을 선물' 하는 가수 박기량씨

사회적 약자 보호 호소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3대 치안정책 일환으로 영천경찰서(서장 심덕보)가 꽃을 나누어 주면서 "꽃으로 때리지 말아요"라는 이색 캠페인을 펼쳤다.

영천경찰서는 26일 오후 임고서원에서 열린 TBC 방송 고백음악회 녹화현장에서 시민들에게 여성·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호소하며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며 꽃을 배부하는 이색 홍보를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 박기량 가수도 함께 동참해 시민들에게 꽃을 나누어 주는 수고를 들었다.

이날 고백음악회 녹화 현장에는 인근 경주와 포항 등 경북도민들과 지역 시민

및 주민 수천여명이 녹화 이전부터 밀려드는 등 임고서원 개원 이래 가장 많은 인파가 몰려들어 이날밤 10시까지 진행됐다.

영천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우리 곁에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요"라는 말에 담긴 작은 폭력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문화인식으로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3대 치안정책은 젠더폭력 근절, 학대·실종 대책 강화, 청소년 보호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치안정책이다. 황정욱 기자



"이장님 덕분에 영천에 살고 싶어" 농사초보 귀농인에 아낌없는 도움, 화산 용평 최갑수이장

영천시 화산면(면장 최영균)은 지난 18일 한 귀농인으로 부터 마을이장에 대한 감사의 편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미담의 주인공은 영천 화산 용평리 마을의 최갑수 이장(61세). 그의 미담을 알린 것은 울산에서 영천으로 귀농한 초보농사꾼 김 모씨.

김 씨는 편지에서 "아무런 경험도 없이 단행한 귀농으로 시행착오와 고비를 겪으며 후회와 좌절감으로 힘들어 할 때 내 일처럼 도와주시며 귀농을 포기하지 않게 해 주신 이장님에 대한 고마움과 감동을 널리 알리고 싶다"고 밝혔다.



어마어마해서 잠 잘 시간도 없이 바쁘실 때였는데 그 바쁜 시간을 쪼개어 도와주신 것을 알기에 고마움을 넘어 감동이였다."며, "사실 귀농 귀촌을 권하는 현수막도 많이 봤고 지원정책도 많이 들었지만 막상 귀농을 실행하기는 힘든데 실제로 이렇게 초보농사꾼의 어려움을 헤아려 도와주시니 앞으로 남은 가족들도 같이 들어와 살아가도 좋겠다"는 확신이 든다"고 밝혔다.

최근 용평리에는 김 씨 가족 말고도 네 가구 이장의 도움을 받아가며 귀농 정착 중인데 이에 대해 최 이장은 "우리 마을에 들어오신 분들이 농사도 잘 짓고 마을주민들과 잘 어울려 살아가면 서로 좋은 일 아닌가."라며 "이장으로서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이장은 화산면 의용소방대장 직도 맡고 있어 산불과 화재 발생 때마다 대원들을 이끌고 누구보다도 앞장 서 진화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매달 관내 독거노인가정을 방문해서 안전 점검과 애로사항을 경청하며 고충 해결에 애쓰고 있다. 지난 4월 화재로 집을 잃게 된 이웃에게는 자진해서 냉장고를 기증하고 마을주민들과 뜻을 모아 성금을 전달하는 등 또 다른 미담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김 씨는 "알고 보니 이장님 맥 농사만 해도

이용기 기자

2017 경북동호인 화합 축구대회

2017. 9. 3.(일) ▶ 9. 10.(일)

육군3사관학교 · 영천단포축구공원

※입장식 9시30분

주최 **영남일보** 영천시체육회
 주관 **영남일보** 영천시축구협회
 후원 **경상북도** 영천시 NH농협 DGB대구은행

이만희 의원, “탈원전 앞서 공공시설 내진보강을 높여야”

전국 지진 252건 중 경북에만 185건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이 “문재인정부는 탈원전 주장에 앞서 공공시설에 대한 내진보강을 먼저 높여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22일 “우리나라 공공시설물 내진율은 지난해 43.7%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밝히고 “내진설계 보강에 대한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내용은 이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진발생현안’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것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은 2016년 252건으로 2015년 44건 대비 5.7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북이 18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 11건, 울산·충남이 6건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진 규모로는 3미만이 218건으로 가장 많았고, 3~4이하 30건, 5~6 3건, 4~5 이하가 1건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 공공시설물 내진율은 지난해 43.7%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져 내진설계 보강에 대한 정부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건물 10만 5,448개소 중 46,111개가 내진설계를 완료되었으며 유형별로 보면 ‘학교시설’이 23.1%로 가장 낮았고, ‘공공건축물’ 36.2%, ‘병원시설’ 65.2% 순으로 낮은 것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우리나라에 일정규모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다면 내진설계 보강이 되지 않은 공공시설 대부분의 건물은 모두 무너져 내릴 것이고 이는 우리 국민의 안전은 물론 국가 마비상태를 초래할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지수 기자

(주)비엠, 영천에 310억원 투자

영천시와 MOU체결



자동차 변속기 부품 전문기업인 (주)비엠(대표 박병욱)이 영천에 310억원을 투자한다. 영천시는 지난 18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비엠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영천시 소재 (주)비엠(대표 박병욱)은 영천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 내 부지면적 10,748㎡에 2023년까지 6년에 걸쳐 310억원을 투자해 자동차변속기부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신규인력 수십명을 고용할 계획으로 있어 지역발전과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비엠(BM)은 ‘Best technology is Mankind.’ 의 약자로 사람이 중심인 인재양성에도 노력하고 있는 성장기업이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변속기 구동 부품 (오도미션용 트랜스퍼 드라이브 및 에놀러스 기어류)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회사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특히 현대과워텍 P-SQ 최우수 협력사로 선정 되는 등 고객사(HMC, KMC, HPT)들로부터 우수한 품질로 인정받고 있다. 최근에는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거래처 발굴 및 해외수출을 위해 노력중이다.

현재 모든 가공제품을 통합 생산하고 있는 영천 제1공장 외 새로 건설되는 제 2공장에는 신규 아이템 및 생산 공정을 적용해 기존 공

장 간 차별화된 아이템 생산 및 가공 능력을 바탕으로 기업 역량 전문화를 실현할 계획이다. 제2공장에서는 전조, 브로치, 호빙 등 전문설비를 이용해 전문 8속 자동변속기와 감마CVT를 제조하며 전문생산기지로 발돋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병욱 대표는 “제2공장 투자를 통하여 지역 우수인재 채용 등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으로 이끌겠다”며 “최근 사드발 경제 위기 및 글로벌 경제 한파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 당사는 위기를 또 하나의 기회를 기회로 삼고 극복하고자 한다”며 포부를 밝혔다.

김영석 시장은 “어려운 자동차 산업 경기 속에서도 우리시에 투자 확대를 결정한 비엠에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와 혁신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용기 기자

긴급차량길터주기, 시민 인식 부족 여전

“신호등 긴급차량에 선행 일반차량 양보 필요”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2017을 지연습(UFG)’이 열렸다. 동시에 지난 23일에는 제404차 민방공 훈련이 ‘을지연습’과 연계해 실시됐다. 이런 와중에 화재출동 골든타임확보를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 참여 훈련이 실시돼 평가를 받았다.

영천소방서(이상무 서장)는 지난 23일 오후 2시 영천소방서를 출발해 신망정사거리~영화교~영동교네거

리~시장삼거리~국민은행오거리~터미널~서문육거리까지 6km를 실천 예상 시간 20분만에 돌아오는 ‘소방차 길 터주기’ 실제 가상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에는 영천소방서, 영천시청, 영천경찰서, 의용소방대 등 민·관·경이 합동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불시에 차량통제와 함께 소방차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 훈련으로 언론사 기자가 소방차에 동승하는 등 리얼한 현장 연습으로 진행됐다.

이날 가상훈련에서는 대부분 교차로와 주요도심거리 및 시내 구간은 유관기관의 협조로 성공리에 훈련을 마쳤으나 일부 영화교 교차로 부분에서는 시민들의 인식과 긴급차량에 대한 대시민 양보방법 홍보 등이 다소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손흔익 기자

영천시지역 농민상담소 역할 활성화 해야

한농연영천시연합회, 지역 12곳 농민상담소 순회 간담회

한농연영천시연합회(회장 한용호)는 지난 1일부터 10일 동안 시연합회 임원과 읍·면·동 임원, 상담요원 등이 참석해 지역 농민상담소 12 곳을 순회하면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일부 시내 4개동을 제외하고 지역 12개 읍·면·동에 설치돼 있는 농민상담소는 상담소장과 상담요원 1명이 각각 배치. 농업인들의 현장애로, 농업기술 상담을 돕는 곳이다. 농업경영인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

선회 등 농업인학습단체와 농업인들의 최신 농업기술정보의 유기적인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장소다.

이번 순회기간 중 참석한 한농연 회원들은 “과거 농촌사회 생활개선 운동, 녹색혁명, 백색혁명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농민상담소를 앞으로 지역의 각종 회의와 교육, 세미나를 농업경영인회에서 앞장서 농민상담소에서 개최하기로 이구동성으로 토로하였다”면서 앞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품목별 농업전문가를 상담요원으로 배치토록 하여 영농상담이 원활히 소통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영천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민상담소가 안락한 교육과 상담장소가 되어 진정한 농민사랑방이 되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산 작목별 영농상담 전문가를 지역안배에 맞게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각 농민상담소에는 퇴직한 전직 농업지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간직 상담소장과 상담요원을 채용 배치해 지역 영농 기술지원 등을 돕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기 기자

전국 최대규모 농기계임대사업장 조성!

늘어나는 농기계 안전사고 제로 도전



영천시는 매년 늘어나는 농기계 임대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경미한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청통면 호당리 농기계임대사업소에 교육훈련관과 농기계 보관창고를 증축하고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영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8천3백여 농가에서 농기계를 임대해 2015년 대비 24%(6천4백 농가) 증가 하는 등 2009년 임대사업 실시 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우리시 농업인들의 영농 편의에 큰 도움을 주고 있어 농업지원 정책 중 가장 인기 있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영천시는 올해 안으로 임대농기계 교육훈련관(920m2)을 건립하고 보관창고를 증축, 굴삭기 외 28종 85대 농기계를 추가 구입하는

등 총 16억(국비 8.0, 도비 2.4, 시비 5.6)을 투자해 농기계임대사업장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또 농기계사용량 증가에 따른 농가 안전사고와 조작미숙, 무리한 작동에 따른 비용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농기계교육훈련관과 실습장을 갖추고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전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재식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기계 임대수요가 갈수록 증가하는 만큼 이번 사업소 증설이 지역 농업인의 농기계 이용편의 증대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농기계교육을 통해 안전사고는 물론 기계의 수명연장과 농작업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장지수 기자

영천시 4개 축제 통합명칭 확정 ‘2017영천 별의별 축제’

한약/별빛/문화예술제/과일축제 통합

제14회 영천보현산별빛축제가 다음달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4일간 영천 보현산 전문과학관 일원에서 개최된다. 영천시는 지난 18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별빛축제위원회를 개최하고 전민족 문화관광해설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본격 축제 준비에 들어갔다.

시는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이번 축제는 ‘나의 별자리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천문·우주·과학을 테마로 한 주제관을 운영해 천문우주과학에 대한 체험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별빛축제와 연계해 문화와 자

환경을 청소년들의 화폭에 담아 관광영천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고자 ‘제14회 전국 청소년 미술실기대회’와 1박2일의 ‘천문우주 과학캠프’를 운영해 머무르는 축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보현산별빛축제는 올해 경북도 유망지정축제로 선정돼 도비 2천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게됐다고 시는 밝히고 있다. 김영석 영천시장은 “이번 별빛축제는 전문 과학축제로서 체험을 통한 배움과 경연의 장을 만들어 축제를 통한 관광객유치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지역 이미지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 축제위원장으로 선출된 전민족 문화관광해설사는 “전년도 축제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해 더 발전된 축제로 변모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영천보현산별빛축제는 올해로 14회째다. 영천시는 영천강변공원에서 열리는 제15회 영천한약축제, 제16회 과일축제, 제44회 영천 문화예술제를 동시에 개최한다는 방침으로 있다.

영천시는 지난 14일 영천시청 내부 전신상을 통해 통합 축제명을 공모해 17일 확정했다. 이들 4개 축제의 통합명칭은 ‘2017영천 별의별 축제’로 결정했다. 손흔익 기자

“머리가 맑아지는 빵 아세요?”, 우리음식연구회 ‘총명빵’ 홍보



김영석 시장과 김순화 의장, “우리빵 우리куси 좋아요!”

영천시 우리음식연구회(회장 이명옥)는 지난 18일 ‘쌀의 날’을 맞아 영천여고(교장 이동길) 1학년 3반 교실에서 회원들이 직접 만든 ‘총명빵’과 쌀쿠키 600개를 학교에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우리음식연구회가 쌀의 날을 기념해 ‘쌀의 날과 함께하는 LOVE 米(미), WITH 米’라는 테마로 실시됐다. 연구회 회원들은 전달할 밥 우리 쌀로 총명빵과 쌀쿠키를

직접 만들어 이날 오전 8시 학교측에 전달했다.

이명옥 회장은 “총명빵은 총명탕과 심전대보탕을 달인 물에 배즙을 넣어 발효시킨 액을 가루로 만들어 빵에 넣었다. 수업생들의 두뇌 활성화와 치매예방에 도움이 되며, 견과류와 견과일이 함유되어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해 한 끼 식사로 부족함이 없다”며 “총명빵과 쌀쿠키는 100%로 우리 쌀로 만들었다”고 강

조했다.

‘쌀의 날’은 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우리 몸에 좋은 쌀의 소비 확대를 위해 지정됐다. ‘8월 18일’은 한자의 쌀(米)자를 분리할 경우 八+八(8·10·8)이 되고, 쌀을 생산하려면 여든 여덟 번 농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고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영천여고에서 전달식을 마친 회원들은 곧바로 김영석 영천시시장과 김순화 영천시의회 의장을 방문해 우리 쌀로 만든 총명빵과 쌀쿠키를 홍보하고 우리음식연구회가 연구·개발한 우리음식을 알리 수 있도록 영천시와 영천시의회에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손흔익 기자

영천 복숭아농가 품평회에서 대상 품질 우수한 복숭아 알리는데 크게 기여

영천 복숭아가 경북 도내 최고임이 입증됐다. 지난 12일 청도 복숭아연구소에서 가진 제6회 복숭아품평회에서 최고의 명예인 대상(경북도지사 상)은 금호읍 신대리 현인환 농가가 수상했다. 또 금상(경북농업기술원장 상)은 우리지역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조교동 김치길 농가가 입상했다. 동상(복숭아 연구회장 상)은 고령면 이철형 농가가 수상했고 장려상(복숭아연구회장 상)은 임고면 효리 이영수 농가가 수상하는 등 거의 모든 상을 휩쓸었다.

이번 수상으로 전국최대 재배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품질이 다소 낮다는 평을 받아온 영천복숭아의 위상이 급격히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 이번 수상을 위해 3년 전부터 영천시는 국비, 도비, 시비 등을 투입해 다양한 품질고급화 사업을 추진했다. 농가들이에 발맞추어 맛있는 복숭아 생산에 노력을 한 결과 이같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 냈다.

제6회 복숭아품평회는 경북 복숭아 농가모임인 복숭아 연구회가 주관하고 경북 농업기술원 복숭아연구소, 경북 복숭아 수출 농업기술지원단이 후원했다.

장지수 기자

영동중 이재웅군 이번엔 한국 신기록(남중부) 육상 한국남 중·등부 1500m서 25년 만에 0.44초 단축



영동중학교 이재웅군이 또 큰 일을 냈다. 한국 육상 남자 중·등부 1500m서 25년만에 신기록을 달성한 것이다. 지난 8일 나주 종합스포츠파크에서 열린 한국전력배 전국중·고등학교 중·장거리 육상경기대회에서 남중부 800m와 3000m에서 각각1위를 차지한지 5일만이다.

이 군은 지난 12일 충북 보은에서 개최된 제46회 추계 전국중·고등학교 육상경기대회 겸 제5회 추계 전국초등학교육상경기대회 3일째 중등부 1500m경기에서 3분 58초 34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다. 종전기록 3분58초 78을 25년

만에 0.44초 앞당긴 기록이다.

영동중 조문희 감독은 12일 밤 흥분된 목소리로 본 기자에게 전화로 “오늘 또 이재웅군의 새로운 소식이 있다. 재웅이가 25년 만에 1500m에서 중·등부 부별 신기록을 달성했다.”라며 소식을 전해주었다.

중 2학년부부터 육상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이 군은 전국소년육상대회와 한국전력배 등 최근 각종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독차지해 전국 육상 명문 고등학교 등으로 부터 한꺼번에 스카우트예의를 받는 등 화제를 불러 모아 본지에 소개된바 있다. 손흔익 기자

화산농협 전국최초 마늘종구사업 시행 김병원 중앙회장, 모범사례 극찬·지원약속 종구생산라인 추가 증설 700톤 공급예정

김병원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이 지난 11일 지역농협 중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영천화산농협을 방문했다.

김 회장은 마늘종구(주아재배) 사업장을 찾아 최문섭 농협 영천시지부장 및 정낙은 화산농협 조합장 등

관계자들과 농가소득 증대에 대한 발전방향 설명회를 가졌다.

화산농협은 2016년부터 총사업비 6억원을 투자해 질병에 강한 고품질의 씨 마늘을 공급함으로써 노동력과 비용절감으로 농가소득에 큰 도움을 주는 마늘종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씨 마늘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 어렵고 시간과 노동력이 많이 소요돼 외지에서 씨 마늘을 비싼 가격에 구입해 사용하고 있어 농가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고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편이다.

지난해 총280톤을 공급해 관내 농업인의 호응이 좋아 올해는 사업비 15억원을 추가 투입해 1개년 종구생산라인을 4개 추가증설 총5개 라인을 가동해 2017년에는 700여톤의 종구를 생산 공급할 예정이다.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은 “수입



산 마늘종구와 농협 공급가격의 차이로 인한 농가소득이 크게 증가하는데 큰 보람을 가지고 농가소득 5

천만원 달성에 큰 사례로 여기고 농협중앙회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용기 기자

무선기로 전 세계 사람들과 교신하고 싶으세요?

경북본부 제129기(3급), 제29기(4급) 아마추어무선기사 강습회

- ◆ 일 시 : 2017년 9월 10일(일) 09시~18시
- ◆ 장 소 : 영천시 자원봉사센터 1층 (영천시 영천고2길 57)
- ◆ 안내처 : 경북본부 054)553-5973
영천지부장 DS5SSY 최호병 010-3545-4135
사무국장 DS5TAA 최일호 010-3502-1273



- 수강료 : 3급(4급 교육이수자 한함) 40,000원
4급(일반, 학생) 130,000원
4급(3급 교육이수자) 70,000원
(4급 자격증발급수수료, 우편료, 대항료 포함)
- 준비물 : 반명함판사진 1매, 신분증
학생은 주민등본 지참
- 교육시간
- 전파법규(3), 통신보안(1), 무선설비취급방법(4)
총 8시간 : 3급(4급 교육이수자), 4급(일반)
- 전파법규(3), 교양교육(1) 총4시간 : 4급(3급 교육이수자)



(사)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경북본부 영천지부



영덕 '고래불'서 10년의 아름다운 동행

영천-동안성로타리클럽

국제로타리3630(경북)지구 영천로타리클럽(회장 박인환)은 19일과 20일 양일간 3600(성남,경기)지구 동안성로타리클럽(회장 양우석)과 자매결연 10주년을 맞이해 영덕 고래불리조트에서 기념행사를 가졌다.

양 클럽은 2007년 영천로타리 한승훈, 동안성로타리 최철규 전 회장 재임시 자매결연을 맺은 후 올해로 10년을 맞았다. 양 클럽은 매년 합동주회와 친선골프대회를 개최해 오면서 클럽간 우호 관계를 돈독히 하고 초아의 봉사를 위한 협력 기틀을 이어 오고 있다.

영덕 고래불리조트에서 가진 이날 행사는 박인환·양우석 회장 및 한승훈·최철규 전 회장, 안성시 김학용 국회의원(동안성RC 회원), 박윤환 영덕소방서장 등과 양 클럽 회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간의 노력에 대해 서로 격려하고 자축하며,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양 클럽의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기로 약속했다.

양 클럽 회원들은 기념행사에 앞서 행사 첫날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동안 영덕 대진해수욕장 일대에서 쓰레기 등을 줍는 환경정화운동도 펼쳤다.

이날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영

천·청도)도 한해런 경북도 의원 등 일행과 함께 행사 첫째날인 19일 양단체 행사 개회식에 앞서 오후 3시 30분경 행사장을 찾아 인근 대진해수욕장에서 양클럽이 벌이는 환경정화운동에 동참했다.

태권무에 퍼포먼스를 연출한 영천 '아리랑태무시범단(단장 성동표)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열린 이번 10주년 기념행사는 '10년의 아름다운 동행'이란 동영상 상영에 이어 양클럽간의 기념패 교환, 자매결연을 맺은 한승훈·최철규 전 회장에 대한 감사패 전달하고 2부 화합의 장 마련으로 뜻깊은 동행의 10주년의 의미를 되새겼다.

박인환·양우석 양클럽 회장은 이날 "10년의 아름다운 동행의 인연을 맺게 해준 한승훈·최철규 전 회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양 클럽이 10년, 20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으로 더욱더 발전적인 관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정욱 기자



스마트폰으로 보는 인터넷 영천신문

갤러리 청애, 이창호 작가 초대전

실제보다 더 빨간 자두 작품을 통해 만나보길



이번엔 자두다. 화사한 꽃이 피어 나더니 색동아리랑의 정감어린 작품이 전시됐고 푸른 초장에 양들이 뛰놀았다. 수확의 계절을 맞아 갤러리 청애(대표 장선애)가 자두작품의 거두 이창호 작가의 초대전을 갖는다. 실제보다 더 싱그러운 자두

가 그려진 작품에서 마치 싱그러운 향기가 뿜어 나오고 입속에선 침이 고여 현실에서 잠시 빠져나온 몽유병 환자같은 느낌이다. 장선에 대표는 "몇달 전 이창호 작가의 극사실 자두작품을 보면서 받은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첫 만남을

회고했다. 실제 자두보다 더 자두같은 빨간 자두는 더 싱싱하고 먹음직스러우며 새콤달콤한 느낌이 그대로 전해져 관람객들에게 전율을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호 작가는 "자두를 매개로 힘들었지만 따뜻한 정이 있었던 유년기의 기억과 고향의 향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전하고 있다"면서 "자두밭에서 금방 수확한 듯 싱싱한 자두의 빨간 분을 표현하고 초록의 잎을 같이 그려 보색의 대비의 효과로 자두를 더 돋보이게 했다"고 작품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두가 담긴 그릇, 장독, 합지박, 되박 등은 어머니를 의미한다"고 풀어냈다.

다시 장선에 대표는 "시민들과 함께 문화예술이 가져다 주는 사회적 역할도 하면서 항상 희망을 향한 활활한 꿈, 아름다운 전시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창호 작가 초대전은 2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갤러리 청애에서 전시된다. 문의는 010-3035-0147번으로 하면 된다.

이용기 기자

일본서 온 대지미술가 5인의 작품전시

에창스튜디오서 Eiji Okubo+ 3 전시



일본의 도쿠시마현립 근대미술관에서 활동중인 작가들이 영천예술창작스튜디오 9기 단기 입주작가로 선정됐다.

9기 단기입주작가로 선정된 오쿠보에이지(Eiji Okubo)를 포함한 토모이 신이치(Oto Shinich Tomoi), 나가타 히로시(Hiroshi Nagata), 슈헤이쇼라쿠(Syuhei Choraku), 마루오카아키코(Akiko Maruoka) 5명

이다. 대지미술가로 알려진 이들은 영천에서 체류하면서 채집한 자연재료, 영천을 경험하고 기억하고자 하는 재료, 영천의 문화와 역사를 담은 내용들을 주제와 소재로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1.2전시실에서 열린다.

작가들은 "이번의 체류·제작, 그리고 전시회가 미술을 통한 한국·영천과 일본도쿠시마의 관계형성에 기여하고, 풀뿌리 같은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국경을 초월한 교류로 확장 되기를 기대한다"며 "본 전시회 개최를 위해 많은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용기 기자

한다혜 영천중 교감, 시집 '나무가 짊어서 아프다' 출간

각종 문예대회 수상작 모아



영천중학교 교감이자 시인인 한다혜 씨가 시집 '나무가 짊어서 아프다' (도서출판 미루나무)를 출간했다. 한 시인의 출판기념회는 지난 25일 영천문화원에서 진행됐다.

한다혜 시집에는 표제시인 '나무가 짊어서 아프다'를 포함해 묵음, 아버지의 얼굴, 방전, 안개는 늪의 전설, 귀한 못, 아픈 길도 젖는다, 텃밭에서 등 70편의 시가 4부로 나뉘어 실렸다.

책의 끝부분엔 한국문학 전 부이사장인 김종섭 시인의 해설 '모성

적 삶과 원초적 시심이 구현한 서정의 정도'가 함께 실렸다.

시집에 실린 70편의 시는 국어교사인 한 시인이 학생들과 함께 각종 문예대회에 출전해 받은 수상작으로 한 시인의 문학적 성과와 함께 교육자로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아왔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김종섭 시인은 "한 시인의 시세계는 넓고 깊고 다양해 개인의 감정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윤리, 총과 효사상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는 여

성 특유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정서로 감정을 다독여 갈등과 고뇌를 이완시키고 해탈 시켜주는 천생(天生)시인이다."라고 평가했다.

1959년 대구에서 출생한 한 시인은 영남대 국어국문과와 경북대 국어교육학과를 수료했다. 36년간 교직에 몸담으며 제자들을 양성하면서 시작에 몰두해 문학적 성장을 일궈왔다. 계간 미래문학 26호와 시사문단 171호를 통해 시인으로 등단했으며 각종 백일장 및 시낭송대회에서 최고상을 수상해 시인으로 시낭송가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문교부·교육인적자원부·국토해양부 장관표창을 받은바 있으며 9월 1일자로 영천중학교 교감으로 승진 발령됐다.

한 시인은 "근무지 이동에 따라 각종 백일장에 문예지도 담당으로 학생들을 많이 참가시켰다. 그런 중에 제출한 일반부 참가시가 하나 둘 모여 시집이 될 줄 생각지 못했다. 반세기가 지나서 시집을 낸다는 일이 때늦은 감도 있고 훗날 펼쳐 보면 허를 찌를 일도 있을 테지만 또 미루면 평생 께지 못할 것 같아서 용기를 냈다."고 말했다.

이용기 기자

'건강 새마을 조성사업 발대식' 가져

행복하고 건강한 신령면 만들기

신령면 건강위원회(위원장 김재식)는 28일 신령 공설시장에서 '건강 새마을 조성사업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는 김장주 경북도 행정부지사, 조남월 영천부시장, 조명재 영천시보건소장, 이종권 신령면장, 김수용·한해런 도의원, 정기택·이춘우·전종천·권호락·허순애 시의원, 김재식 신령면 건강위

원장, 건강위원회 위원,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건강 새마을 조성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건강을 가꾸고, 건강문제를 주민들이 조사하고, 필요한 건강사업을 주민들이 선정, 선정한 사업을 경북도와 영천시가 적극 지원하며, 주민들의 건강 문제를 주민들의 힘으로 해결해 나가는 사업이다.

손흔익 기자

삼양연마공업(주), 3대째 꾸준한 장학금 기탁

금호읍축산작목회 100만원, 삼양연마공업(주) 600만원



“대를 이어 전해온 꾸준한 지역 사랑에 영천교육발전의 염원을 담아 명품교육환경을 반드시 완성해 나가겠다.”며 영천시장학회 김영석 이사장이 금호읍축산작목회(회장 한일만)와 삼양연마공업(주)(대표이사 손동기)에 고마움을 전했다. 지난 21일 금호읍축산작

목회(회장 한일만)에서 100만원, 삼양연마공업(주)(대표이사 손동기)에서 600만원을 각각 기탁했다.

창립 67년의 장수기업인 삼양연마공업(대표이사 손동기)은 30년 전인 장학회 설립이전부터 영천시에 장학금을 기탁해 현재까지 총

5,300만원의 장학금을 보냈다. 영천에 본사를 두며 3대째 기업을 이어오고 있는 삼양연마공업(주)는 관내 영동고등학교와 인근 영남대학교에도 장학금과 발전기금을 지원하며 교육에 아낌없는 투자를 지속하며 성장하고 있는 영천의 뿌리기업이다.

이날 기탁식에서 “우리가 숯돌을 연마하는 신념으로 영천의 학생들도 수많은 연마과정을 거쳐 지역이 원하는 인재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영천시장학회가 청소년들의 성장에 많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금호읍 축산작목회에서는 지난 11일 개최한 영천축협전이용대회에서 수령한 시상금을 영천시장학회에 인재육성기금으로 내놓았다.

60여 축산농가로 구성된 축산작목회를 이끌고 있는 한일만 회장은 “우리회원들의 중지를 모아 사사로운 것보다는 영천 인재육성에 보태는 것이 고향영천에 큰 힘을 보태는 것이라 여겨져 기탁하게 됐다.”며 소감을 밝혔다. 황정욱 기자

영천시 제258차 경북도 시군의장협의회 개최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7’ 성공 지원 약속

영천시의회(의장 김순화)는 지난 25일 영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258차 월례회를 개최했다.

김익수 협의회장을 비롯한 각 시·군의회의장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는 영천시의회 의원 및 김영석 영천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등이 회의장을 방문해 각 시군의회의장들을 맞이했다.

김순화 의장은 환영사에서 “영천시를 방문해 주신 각 시·군의회의장님을 환영하며, 경북시군의장협의회를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정보와 지혜를 교환하는 창구로서의 기능이 활발히 이루어져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7’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경북시군의회의장들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이날 회의는 지난달 청도군에서 개최됐던 제287차 월례회 개최



결과 전달 및 각종 현안들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하는 장이 됐다.

경북시군의회의장들은 이날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7’의 성공 개최를 위한 범도민적 공감대 형성과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해 엑스포 관람 및 홍보를 위한 기초의회 간 협력과 전폭적인 지원 및 성원을 약속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는 각 시·군의회 간 상호 협력증진과 자치의정 역량 강화를 통한 도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매월 순회 개최하고 있다. 차기 월례회는 예천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장지수 기자

정목스님의 행복 디자인,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영천시 교육문화센터 ‘시민행복 반올림 아카데미’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의 저자 정목스님(서울 성북구 정각사 주지)이 지난 16일 영천시 교육문화센터에서 ‘시민행복 반올림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으로 초청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에는 김영석 영천시장을 대신해 하기태 행정자치국장이 스님을 맞이했고, 시민 행복을 전해줄 스님의 특강을 듣기위해 350여명의 시민들이 공연장을 가득 메웠다.

하기태 행정자치국장은 “이번 특강은 한동안 정체되었던 아카데미를 김 시장님께서 남다른 마음으로 지난 2015년 새로이 재개한 시간인 만큼 정말 귀하신 정목스님을 모시고 시민 행복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끝까지 청강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목스님은 1976년 출가해 1990년 최초의 승려MC로 불교TV와 불교라디오 및 인터넷 방송 등에서 맹활약 중이다. 한국 불교계 비구니스님으로는 가장 영향력있는 제1인자로 알려진 정목스

님은 자신의 마음치유 산문집인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는 저서로 유명하다.

지난해 5월부터 불교방송 예능 프로그램인 ‘힐링캠프’에 출연해 시청자들에게 살아있는 힐링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스님은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는 저서 외에도 ‘비울수록 가득하네’, ‘마음고요’, ‘산빛이야기’ 등 다양한 저술활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고 있다.

강의에 들어서자마자 맑고 청아한 목소리로 “방금 소개받은 정목입니다”로 시작한 이날 스님의 특강은 시종일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인연, 우리에게 허락된 100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강의로 1시간30분가량 열어나갔다.

“우리 인생은 한 치의 앞이 보이지 않는 불안 속에서 우리는 복을 짓지 못한 박복한 땅(남쪽에 위치한 한 장소) 중 죽지 않을 만큼 고



통이 뒤따르는 땅(사바세계)에서 살고 있다”면서 “인생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욕심과 집착으로 타를 취해서 살 수밖에 없다”는 말로 부정 속에서 긍정의 삶을 발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스님은 “영천이 고즈넉하고 소박한 그리고 조용하면서도 발길을 쉽게 들여놓지 못하는 작은 도시로 여겨왔는데 와서 보니까 엄청 센 것을 느꼈다”고 말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면 지역 시민들의 행복지수도 함께 높아진다”면서 “초대해 주어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장지수 기자

3사관학교-민병철교육그룹 ‘MOU’

학교 생도 영어교육 증진 기대

육군3사관학교(학교장 소장 서정열)가 국내 영어 생활화를 이끌어온 ‘민병철교육그룹’(회장 민병철)과 25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관생도들의 영어교육 증진에 나섰다. 이번 업무협약은 장차 장교들에게 외국군과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이 요구됨에 따라 사관생도들이 입관 전에 영어능력을 기본 소양으로 갖추기 위해 마련됐다.

민병철 교육그룹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영어말하기 Level Test’, ‘토익 스피킹 학습’, ‘영어 프로그램 무료수강’ 등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또, 시중에서도 유명한 ‘전화영어(민병철유폰-Uphone)’ 프로그램 무료체험 및 수강료 할인, 학습우수자에 대한 장학제도 시행 등의 편의도 제공한다.

매일 생도들은 바쁜 생도생활 속에서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원하는 시간에 외국인 강사와의 1:1 영어회화 수업이나 작문 지도를 받으면서 꾸준히 영어실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이번 협약을 준비한 영어학과장 양성우 교수는 “이번 협약으로 생도들의 영어수준이 향상되어 장차 연합작전 및 군사외교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정예장교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병철 회장은 내달 15일 육군3사관학교를 다시 찾아 사관생도들을 위해 ‘Ideas to Reality(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생각)’란 주제로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황정욱 기자

합창단 단원모집

“춤추며 노래하는 별의별합창단”

영천시민예술단에서 극단 별의별씨어터에 이어 두 번째로 별의별합창단을 창단하여 아래와 같이 단원을 모집합니다.

별의별합창단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춤과 함께 즐기는 별난 합창단입니다. 예술은 어렵거나 멀리 있지 않습니다. 늘 당신 생활 속에 함께 있었고, 지금도 당신을 삶을 감싸고 있습니다. 단지 보이지 않을 뿐, 영천시민예술단에 오시면 예술이 보일 겁니다. 예술단에서 당신의 열정을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 ♣ 응 모 자 격 : 열정이 넘치는 남녀(만60세 이하)
- ♣ 모 집 기 간 : 2017년 8월(월) 14일 ~ 9월 4일(월)
- ♣ 원 서 접 수 : 인터넷, 현장접수(국학학원 2층사무실)
- ♣ 오디션 일시 : 2017년 9월 6일 (수요일) 저녁 7시
- ♣ 오디션 장소 : 국학학원(구 등기소)
- ♣ 연 락 처 : 010-7411-8352 (안애경)



영천시민예술단은 2015년 영천에서 진행된 2015문화의 달(문화부)을 계기로 영천과 인연을 맺은 박광태 감독이 영천의 문화예술발전과 도래하는 생활예술의 시대를 준비하고자 설립된 순수예술단이다. 영천시민예술단은 2015년 7월 7일 극단 별의별씨어터를 창단하여 2016년 7월 창단공연 “등신과 머저리”를 영천시민회관에서 공연하였고, 2016년 10월 영천출신의 위대한 예술가 왕명 이흥호선생의 삶을 다룬 악극 “황성옛터”를 조양각에서 공연한 바 있으며, 2017년에는 포은 정몽주선생의 음악극 (가제) “포은의 향”과 뮤지컬 “빨래”를 준비 하느라 단원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신년중, 치매 서포터즈로 활동 과거로의 여행,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신년중학교(교장 오선미)는 지난 18일 은혜사 숲속에서 치매보듬마을 어르신들을 돕는 치매 서포터즈 활동을 펼쳤다.

학생들의 치매 서포터즈 활동은 영천시 보건소에서 개최하는 '그때 그 시절 추억의 소풍' 행사와 연계해 실시됐다. 이번 행사는 학생과 치매보듬마을 어르신 간의 세대통합 치매예방 활동 및 치매보듬마을에 대한 자금심고취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치매 서포터즈 활동은 은혜사 입구에서 어르신들과 처음 만나는 순간 시작됐다. 학생들은 거동이 불편하신 어

르신들의 집을 들어드리거나 손을 꼭 잡아드리고 부축해 드리는 등 어르신들이 행사 장소까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다. 레크리에이션, 치매 O/X퀴즈, 노래자랑 등으로 꾸며진 행사에서 학생들은 어르신들과 함께 열심히 박수치고 게임에 참여했다.

윤기섭 지도교사는 "이번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봉사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된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라고 치매 서포터즈 활동을 칭찬한 소감을 전했다.

이용기 기자

영천시장학회에 어르신들의 정성까지 더해 (사)대한노인회 영천시지회 320여만원, 영천축협 1,000만원



지난 11일 (사)대한노인회 영천시지회(지회장 성낙균)에서 3,217,820원, 영천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정동채)에서 1,000만원의 장학금(재)영천시장학회(이사장 김영석)에 기탁했다.

삼복더위를 건강히 넘긴 대한노인회 영천시지회 회원 20여명이 영천의 미래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400여개 경로당 어르신들과 영천시지회 사무국 직원들까지 동참해 십시일반 모금한 귀한 성금을 영천시장학회에 기탁해 2016년 600만

원에 이어 총 920여만원의 장학금을 보냈다. 기탁식에 참석한 성낙균 회장은 "우리 아이들이 영천에서 훌륭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이 우리시의 희망이며, 우리의 연륜과 경험을 보태어 고생은 우리 대에서 끝내고 어린학생들의 꿈을 키워주고 싶다."며 소감을 밝혔다.

영천축협은 영천시민회관에서 조합원들간의 친목도모와 조합사업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한 조합사업 설명회, 결의문 채택,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의 특강으로 이루어진 2017 조합

사업 전이용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지역의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금(재)영천시장학회(이사장 김영석)에 기탁해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됐다.

영천축협은 1954년 7월 설립 이후 조합원 1,300여명으로 구성된 지역의 축산업육성의 컨트론타워 역할을 담당하며 축산사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2002년 정동채 조합장 취임 후 2003년 150만원 기탁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4,7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이용기 기자

영천진로체험지원센터

중·고등학생 꿈찾기 진로캠프 개최



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유병수)은 지난 22일 대구한의대학교에서 관내 중·고등학생 500여명을 대상으로 꿈찾기 진로캠프를 개최했다.

대구한의대학교에 위탁 운영 중인 영천진로체험지원센터 주관으로 진행된 이 행사는 중학생 210명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관심이 많은 로봇공학자, 드론연구가 등 7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별도 중학생 40명을 대상으로 대구한방병원과 대구그랜드호텔에

서 진로 설계 통합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또 고등학생 250명은 한의학과, 경찰행정학과 등 11개 전공 프로그램과 본 대학교 한학촌에서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유병수 교육장은 "앞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꾸준히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황정욱 기자

별빛중학교, 외교관 초청 진로특강 실시



별빛중학교(교장 이원택)는 지난 16일 교내 시청각실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2017 자유학기 외교관 초청 진로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전 호주 시드니 주재 대사관 이휘진 전직 외교관을 강사로 초빙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농산어촌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진로 프로그램의 하나로 외교부에서 전국 단위 공모 학교를 대상으로 선발해 실시하는 행사이다.

학생들은 평소 무관심했던 외교부가 하는 일을 비롯해 외교관의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소개 자료와 풍부한 경험담을 토대로 외교관이라는 직업에 대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었다.

특강에 참가한 2학년 김지혜양은 "외교관이라는 직업이 우리나라의 국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함과 동시에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용기 기자

창의융합형 인재키우는 과학연수 실시 올해 2학기 학년별 과학실험



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유병수)은 지난 23일과 오는 30일 영천중앙초등 과학실에서 관내 5~6학년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2017학년도

2학기 학년별 과학실험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2학기를 맞아 과학 과 수업 방법 개선을 위한 사전 연

수를 실시해 실험의 오류를 사전 예방하고 탐구 중심의 재미있는 과학수업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실시하게 됐다. 지난 1학기에 학년별 과학실험 연수를 실시해 참여한 선생님들의 만족도와 열의가 높아 특별 연수로 운영하고 있다.

이날 연수는 과학실험 안전교육, 운동과 에너지, 물질, 생명, 지구와 우주, 융합탐구교육 등 탐구 실험·실습 중심교육과정으로 운영돼 과학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교수·학습 역량을 강화 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병수 교육장은 "학년별 과학 실험 연수를 통해 학생들이 재미난 활동중심 과학 수업으로 과학적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체득시키고 그 내용을 실생활과 접목시켜 활용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키우는데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 된다."고 말했다.

황정욱 기자

학부모와 함께하는 찾아오는 물놀이체험



고경초등학교

고경초등학교(교장 이경순)는 지난 23일 본교 운동장에서 학부모와 함께하는 찾아오는 물놀이 체험학습을 실시했다.

폭염이 기승하는 요즘 함께하는 물놀이 체험학습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단체 활동으로 리더십과 폭넓은 교우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날 물놀이 체험학습은 본교 수돗

물을 사용해 수질이 우수했고, 학생들은 신나게 물 미끄럼틀도 타고 물싸움도 하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6학년 최모 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서 물놀이를 하니 더 즐겁고 안전하게 물놀이하기 위해 친구를 배려하고 도와주는 마음을 조금 알게 되었다." 라고 소감을 말했다.

이경순 교장은 "앞으로도 학부모와 함께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황정욱 기자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 대응전략 보고회



새정부 정책기조에 따른 영천시 대응전략을 위한 '100대 국정과제 대응전략 보고회'가 조남일 영천시 부시장 주재로 50여명의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보고회는 새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에 따라 경상북도 세부실시계획 수립과 영천시 각 부

서별 대응책 마련을 위한 것이다. 시는 이번 부서별 100대 과제를 면밀하게 분석해 향후 국·도비 확보와 제도개선 및 시책발굴의 기본 자료로 삼을 계획이다.

지역발전과 직접 연관되는 국정 과제들을 각 부서별로 분석, 총 102개의 대응전략이 제시된 이날 영천시 보고회는 현정부 핵심과제인

▲지역일자리 창출 ▲新 성장사업 발굴 ▲복지정책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날 조 부시장은 "정부의 패러다임이 바뀌어, 새로운 정책들이 쏟아지는 바로 이 시기가 향후 5년간 지역발전의 방향과 성과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전 부서가 100대 국정과제와 정부 부처의 정책들을 꼼꼼하게 살펴 지역 역점 시책과 현안사업들을 조속히 추진하고, 새로운 신성장 사업을 발굴하여 국책사업화 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이번 과제를 기초로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중앙부처별 업무보고 등을 면밀히 분석해, 경북도와 연계한 국정과제 맞춤형 지역 신규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는 한편, 내년도 예산편성방향도 4차산업의 선제적 대응, 청년일자리 확대, 인구늘리기 등 현안업무 대처에 중점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황정욱 기자

내년도 지적재조사 지역 주민설명회 개최

영천시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계분쟁 해소는 물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나섰다.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중앙동주민센터, 자양면도일리 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영천지사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전지구 및 충효지구 2018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선정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를 바로 잡기 위해 실시하는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실시하는 국비 보조 사업이다.

이에 시는 주민설명회에서 해당지역 토지소유자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사업지구 추진목적, 배경, 절차, 주민협조사항 등을 설명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했다.

영천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올바른 이해와 공감대가 선행돼야 추진될 수 있다"며 토지소유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황정욱 기자

을지연습 비상소집 훈련 실시

영천시는 21일 오전 6시 공무원 비상소집 발령을 시작으로 4일간 전쟁 등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민·관·군 합동훈련인 을지훈련에 들어갔다.

이날 비상소집발령 통보에 따라 응소대상 893명(필수요원214명,

일반직원679명)의 영천시 직원들은 응소장소인 시청, 읍면동사무소로 신속히 응소했으며 전원 시간 내 응소를 완료했다.

또 시는 북핵 등 최근 국가 위기 의식 고조에 따른 대응훈련과 각종 생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민들

의 비상대응능력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실제 훈련할 예정이다.

김영석 시장은 "오늘 비상소집 훈련을 시작으로 2017 을지연습이 본격적으로 돌입됐다"며, "국가 안보 상황이 매우 급박한 가운데 실시하는 훈련인 만큼 각자 맡은바 임무에 적극 임해 위기상황 대처능력을 길러줄 것"을 당부했다.



영천장북-영천스타라이온스 MOU 체결 장애인 복지 발전 상호협력 약속

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재근 이하 영천장북)과 영천스타라이온스클럽(회장 조희재)이 지난 16일 MOU를 체결했다. 지역사회발전과 지역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에 꾸준히 기여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에 뜻을 함께 한 것이다.

조희재 영천스타라이온스클럽 회장은 2016년부터 장애인무료급식지원 및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사랑과 나눔을 몸소 실천해 왔다. 이를 계기로 더 많은 지역장애인들의 복지향상 필요성을 느껴 적극적인 봉사와 후원활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조희재 회장은 "오늘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더 노력하겠다"며 아낌없는 후원과 참된 봉사활동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영천시 지역장애인의 건강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복지, 후원사업 등을 통한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재근 관장은 "지역 장애인 복지 발전에 관심 가져주시는 영천스타라이온스클럽 회장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장애인복지발전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복지실현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용기 기자

영천시장·영천시의회의장 25일, 김천 경북농업경영인대회 참석

김영석 영천시장과 김순화 영천시의회의장은 지난 25일 오후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함께 (사)한국농업경영인 경상북도연합회가 주최한 제 14회 경북농업경영인대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4일부터 오는 26일까지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에서 개최됐다. 경북도 각 시장·군수 및 국회의원, 도의원, 유관기관·단체장, 농업경영인 회원과 가족 등 연

인원 8천여명이 참석했다고 도는 밝혔다.

이날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한 우수 농업경영인 39명이 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 표창을 수상했으며, 농업·농촌 회생 촉구를 위한 결의문 채택도 있었다.

행사에서는 농기계업체가 참여하는 농기계 전시회,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가 상담, 농업관련 문제를 풀어보는 도전골든벨 등 다채로

운 행사로 진행됐다.

한농연 경북도연합회는 1981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육성하는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구성된 농업선도자로서 30년 역사를 가진 조

직이다.

이날 김 지사는 축사를 통해 "가뭄과 폭염, 우박피해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촌 현장을 지키는 농업경영인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

다"며, 농업은 생명·안보·녹색 산업으로 반드시 지켜내야 하고 그 선두에 농업경영인들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장지수 기자



영천신문 독자란!!

이 난은 독자들의 요청에 따라 영천신문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개인인사, 영업홍보, 구인광고, 결혼, 축하, 행사 등을 알려주시면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전화 —
광고국 054)338-7100
010-7138-3340
FAX)054)335-6600
E-mail : licyg4@hanmail.net

북안종합건설(주)
건축자재전문기업
예림도어/몰딩/마루/사시/합판
목재/방부목/싱글/사이딩

영천시 북안면 운북로 1973
☎ 054) 333 - 7025

타일 시공
타일시공 · 욕실수리전문

박봉환 010-4870-9686

계좌번호 : 농협 758-12-122338

친절하게 안전하고 빠르게 모십니다!

박종석 011-521-0006

친절하게 안전하고 빠르게 모십니다!

미스터 플라워
전국 꽃 배달서비스

신정희 010-3554-3726

영천시 금원로 81-1(완산동)
☎ 054) 333 - 8877

(주)부국전력·소방
면허 제1025호
(소방공사업/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이정기 010-2804-7951

영천시 아사동 119-12번지
☎ 054) 332 - 7282

세원인력개발
인력모집/수목관리/집수리
청소철거/폐기물/토목

박석암 010-4511-9525

☎ 054) 332 - 9525

삼송꾼만두
사단법인)한국프랜차이즈협회

박동환 010-8852-8806

☎ 054) 333 - 8806

일신종합상사
납품전문업체

금형공구/금형표준부품
금형소모품 및 밀핀가공

영천시 영천신단로 347-17(채신동)
☎ 054) 337 - 0984



농가희망봉사단, '사랑의 집 고치기'로 농가에 희망

노후 농가수리 외 생활용품 지원

농협중앙회 농가희망봉사단(단장 김형신 인사총무부장)은 지난 18일 신령면 화서리 마을회관에서 사랑의 집 고치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집고치기 행사를 위해 허식 농협중앙회 부회장이 직접 서울에서 내려와 참석했다. 지역에서는 이만희 국회의원과 김순화 영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한혜련·김수용 도의

원, 최문섭 농협 영천시지부장, 박영진 신령농협 조합장과 농협 관계자, 화서리 이장 및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농협의 '사랑의 집 고치기 농가희망봉사단'은 건축, 전기, 기계 등 전문기술을 보유한 농협 직원들이 2005년에 자발적으로 결성되어 매월 전국을 순회하며 집 고치기 봉사

활동을 실시해오고 있다. 이들 봉사단은 이달 8월 현재까지 연 인원 7,000여명이 전국 577가구를 대상으로 노후 주택수리, 보일러 및 급수배관 교체, 전기배선·교체하는 등 지역 노후 농가 등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농가희망봉사단은 지난 7일부터 신령면 4개 농가(화서리, 연정리, 매양리, 화남리) 각 1개 농가를 대상으로 '사랑의 집 고치기' 행사를 시작

으로 이날 화서리 J모(85)씨 농가가 본 행사 마무리사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식 농협중앙회 부회장은 "고려할 총신이신 포은 정몽주 선생의 고향인 영천에서 봉사를 하게 돼 너무 감사를 드린다. 더불어 농협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해 가겠다"고 인사했다.

이만희 국회의원은 "영천의 4개 농가를 선정해 봉사를 해주신 농협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농민 소득증대와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

가자"고 전했다. 김순화 의장은 "노고 해주신 농협중앙회 농가희망봉사단께 감사드립니다. 시의회도 부강 농촌을 만드는데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진 조합장은 "노고 해주신 봉사단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날 '농가희망봉사단'은 화서리 집고치기를 비롯해 주민들에게 생필품도 함께 전달했다.

손흔익 기자

스타라이온들, 환경정화활동에 구슬땀

영천스타라이온스클럽, 지역사랑실천

스타라이온들이 환경정화활동에 나서 지역사랑을 실천했다. 국제라이온스협회 356-E(경북)지구 영천스타라이온스클럽(회장 조희재)은 26일 젊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임고강변공원 일대에서 환경보호활동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는 조희재 회장, 최병운 초대 회장, 서종권 영천라이온스클럽 전 회장을 비롯, 20여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특히 라이온의 자녀들이 함께 참여해 봉사활동의 본을

보여줘 뜻깊은 행사로 이어졌다. 조희재 회장은 "바쁜 일정을 제쳐두고 함께 참여해 주신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오늘 우리가 흘린 땀이 우리 지역을 깨끗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가을초입 따가운 퇴악별이 내리쬐는 가운데 여름내내 상류에서 내려온 오물과 일부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수거했다. 비닐로부터 페타이어, 가정

용품까지 수거해 주변 강변을 말끔하게 정리했다.

엄마를 따라온 박지환(영천중앙초 5년)군은 "엄마를 따라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재미있어요.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라며 환하게 웃음을 지었다. 박군은 지난해 연탄나눔 봉사활동에서 참석했다고 클럽총무가 살짝 귀뜸했다.

경북 최초로 남녀 혼성으로 조직된 영천스타라이온스클럽은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활동, 환경보호활동에 나서는 등 지역 봉사단체로 알려져 있다.

이용기 기자



동부동새마을회 '사랑의 집 고쳐주기' 10년째 계속



영천시 동부동새마을회(회장 최해곤, 부회장 최분순)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봉사를 매년 주택 2가구에 10년째 무료 봉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이들 회원 20여명은 지난 19일과 20일 아사동 주택 2가구(가구당 약 200만원 소요)에 대해 '사랑의 집 고쳐주기' 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회원들은 도배, 장판, 싱

크대 교체, 청소 등으로 직접 구슬땀을 흘렸다.

최해곤·최분순 회장은 이날 봉사활동을 마친 후 "함께 해주신 회원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멈추지 않고 매년 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면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의 의미를 되새겼다.

손흔익 기자

자양초 35회 동기회 장학금 500만원 전달 슬픔 잊고 공부에 매진하길

영천 자양초등학교 제35회 동기회 회원들은 지난 14일 동기생인 고(故) 정균식의 자녀 병희(영천고 2년)군에게 장학금 500만원을 전달하고 위로했다.

이날 장학금은 자양초 35회 동기생 41명이 십시일반으로 참여해 500만원을 모금한 것이다.

김상복 회장은 "돌아가신 아버님의 슬픔을 하루 빨리 잊고 공부에 매

진해 장차 나라의 큰 일꾼이 돼 달라"고 위로했다.

이에 정병희 군은 "도움을 주신 아버님 친구분들의 고마운 뜻을 잊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장학금 모금은 서종락(진원대표) 전 동기회장의 제의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기 기자



사설

시민혈세(예산) ‘市長’ 째지 돈 아냐!

탐욕이 도를 넘으면 화를 부르는 법

모든 재정은 시민의 승인과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재정민주주의 원칙이다. 따라서 예산은 의회의결을 거쳐야만 성립될 수 있다. 그런데 의회가 시민의 대의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면 집행부야말로 마냥 놀고먹는 떡이다.

바로 영천시를 두고 하는 말이다. 영천시가 편법예산집행을 해도 아무 간섭을 받지 않으니 말이다. 의회와 집행부가 한통속이나 다름없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설득력 있다.

최근 영천시의 예산쓰임새에 합리성이 결여됐다는 시민들의 따가운 질책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선심성 예산집행이 시민들의 눈에 훤히 보인다는 뜻일 것이다.

사)송계(한덕련)선생기념사업회에서 요청한 유림재현관 건립이 바로 대표적인 선심성 예산이다. 전액 시비 15억원으로 건립된다. 이 사업은 지역 유림들이 요청한 사업도 아니다. 그렇다고 누군가 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더욱 아니다. 지역 시민단체는 “그냥 도지사와의 친분으로 경북도 문화융성위원장(한 모씨)이 자신의 할아버지를 위해 ‘유림’이라는 이름을 빌려 조상을 우상화 하는 사업에 왜 시민의 혈세를 써야만 하느냐?”는 불멘소리다.

이 사업은 의회보고도 영터리로 했다. 전액 15억원의 시비로 사업을 하면서 의회에는 도비 6억원, 시비 6억원, 자부담 3억원(합계 15억원)으로 보고한 것이다. 이같은 사정을 정작 시의원들과 도의원조차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알고도 모른척 했는지 아니면 영천시가 거짓보고를 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담당마저도 구체적 사업계획조차 없이 도(道)에서 예산이 내려오니 어쩔 수 없이 시비를 보태 ‘유림재현관’을 건립하고 있다는 해명처럼 원하지도 않은 사업에 김 시장과 도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개인 째지 돈 쓰듯 했다는 증거다. 관·항·목이 맞지 않는 예산서를 보면 뭔가 섞여잡은 부분이 엿보인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본지로부터 보조금 편법집행에 대한 따가운 질책을 받았지만 소귀에 경 읽기다. 특정 언론이 원한다고 지난해 급작스럽게 제1회 전국동호인 축구대회를 만들어 동네축구로 막을 내리더니 올해는 경북동호인축구대회로 이름을 바꾸어 현재 준비 중이다. 특히 이 사업예산이 수천만원인 것에 비해 특정 언론에 전체 사업비 22%를 광고비로 지출해 본래 사업의 취지까지 무색케

하고 있다. 이 사업은 당초 본지의 지적으로 김 시장이 대회 취소를 약속하고도 강행하고 있어 말과 행동이 다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이다.

거기다가 이번 제2회 추경에도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또한 특정 단체 요구 행사예산으로 당초 추경의 본 취지와는 동떨어진 예산편성이다. 의회가 이번에는 예산심사를 철저히 해야 하는 대목이다.

과거와는 다르다. 이제 시민들이 두 눈을 둥그렇게 뜨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아무리 지적을 해도 시정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소귀에 경을 읽을 수는 없다.

지금 김 시장의 행동에 딱 맞는 자성어가 있다면 ‘曠官知者(광관지자)하니 마이동풍(馬耳東風)이 딱 맞는 말이다. “관리가 직무를 게을리 해 비난을 받으니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뜻이다.

시민단체의 말을 인용해 다시 한번 당부한다. ‘탐욕이 도를 넘으면 화를 부르는 법’. 시민들의 소리를 마이동풍 하듯 흘리지 않길 기대한다. 의회의 방관을 틈타 예산편성과 집행에 한치의 허투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태현 변호사의 법률상식

<이번 이견 우에 돼요?>



직장 맘. 친정집에 아이 맡기고 출근하다 발생한 사고는 공무상 재해일까?

김을녀는 경주에 살고 경주시청 공무원이다. 그런데 친정은 북안에 있다. 저녁에 퇴근 후에는 아이를 김을녀 부부가 직접 돌보지만 출근 후부터 퇴근하기 전까지는 친정집에 아이들을 맡겨두었다.

오늘도 김을녀는 장맛비를 뚫고 시청에 출근하는 길에 친정집에 아이를 맡기러 차를 운전해 북안으로 갔다가 아이를 내려 주고 경주시청으로 출근을 위해 차를 운전해 가고 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시야를 방해받고 고인 빗물을 미처 피하지 못해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도로수를 들어받아 후유장애가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입고 말았다. 아이를 키우는 직장맘 김을녀씨는 출근길에 발생한 사고였으니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를 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은 ‘아이를 집과 직장 사이에 있는 어린이집에 맡기거나 돌보미를 고용해 집에서 아이를 돌 볼 수도 있는데, 굳이 경주에서 북안까지 먼 거리를 돌아 친정집까지 가서 아이를 맡긴 후 직장에 출근하는 경로는 통상적인 경로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통상적인 출근 경로이고, 친정집에 아이를 맡기고 출근하는 것은 통상적인 출근경로가 아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의 말은 맞는 말일까?

<그건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네요~!>

민간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보호는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이 적용되고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공무원연금법입니다. 그런데, 두 법은 약간의 적용 범위의 차이가 있고, 특히, 출, 퇴근과 관련한 사고에서 공무원연금법은 제법 폭 넓게 보장을 하는 반면, 민간 사업장 근로자들에 대한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은 아주 예외적으로 보장을 하고 있다는 점은 예전 칼럼에서 쓴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출근 경로가 ‘이례적이지만 않으면’ 자가용을 운전해 출근 하더라도 모두 공무를 하기 위한 준비행위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공무상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례는 공무원이 출근 중에 당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출근 도중 친정집에 아이를 맡기기 위해 제법 먼 거리를 자가용을 운전해 갔다가 오는 행위를 ‘통상적인 출근 경로로 볼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사례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의 논리처럼, 왜 집과 직장 근처의 어린이 집에 아이를 맡기거나 입주 돌보미를 고용해 아이를 맡기지 않고 굳이 먼 길 돌아 친정까지 가서 아이를 맡기고 출근하느냐 ‘고 따져 봄직도 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 키우는데 어떤 방식이 최선의 방식이다’라는 것은 없는 것이고, 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친정부모에게 맡겨 키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적절한 양육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틀렸다’고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친정 부모에게 아이를 맡기고 출근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더 더욱이 친정 부모님의 집이 집과 직장 사이에 있었다면 이는 아주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이어서, 공교롭게도 친정 부모님의 집이 집과 직장 사이가 아니라 할 지라도 이를 두고 ‘통상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감이 많습니다.

법원도 약 10km를 돌아 출근하는 수고를 마다 않고 친정부모집에 아이를 맡기고 출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를 통상의 출근길 사고로 보고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9751).

☞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질의 해주시면 <이번! 이견 우에 돼요?>를 통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746-0088, Fax746-0137
thyune@hanmail.net

다문화가정 다동이 이름 작명

김관용 경북도지사, 다문화가정 다동이 작명 선물



지역 다문화가정 출생아 이름을 도지사가 직접 지어주어 화제다.

지난 24일 지역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다동이의 이름을 김관용 도지사가 직접 지어 전달했다. 화제의 주인공은 예전에서 태어난 한국-베트남 다문화가정 셋째 권경동(權慶東) 군이다.

주인공 가정과 김 도지사의 인연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권혁대(夫, 한국)씨와 한송이(母, 베트남)씨는 경북도에서 주최한 다문화가정 합동 결혼식에서 부부의 연을 맺었고 이때 김 도지사와 자리를 함께 했다.

이후 부부는 2015년 ‘道-베트남 타이 응웬성 자매결연 10주년’ 행사에서 참석한 내외빈에게 정성 가득한 베트남 쌀국

수를 만들어 대접했고, 이를 눈여겨 본 김 도지사는 “셋째 아이 이름은 내가 지어주겠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2년 후인 2017년 7월 부부는 셋째를 임신한 만삭의 몸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경북도에서 개최한 “2017 국제교류의 날” 행사에 참가해 800그릇에 달하는 쌀국수를 만들어 대접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김 도지사는 부부의 셋째아이 출산이 임박한 사실을 전해 듣고 2년 전 약속을 떠올리며 지체없이 약속을 지켰다.

아이의 이름은 안동 權씨에 경북도를 상징하는 ‘慶’, 그리고 동쪽나라(베트남)의 빛을 상징하는 ‘東’, ‘권경동(權慶東)’으로 작명했고, 이를 저명한 서예가를 모셔 족자로 제작해 부부에게 전달했다.

부부는 현재 예천군 상설전통시장 내에서 베트남 쌀국수 전문점을 운영 중으로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커뮤니티 활동 또한 활발히 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김관용 도지사는 “이역만리 이국에서 경북까지 와서 열심히 생활하는 것도 대단한데, 셋째아이까지 출산했다는 소식에 가만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며, “다문화가정의 사회적응과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우리사회의 해답을 보여준 모범 사례”라고 평했다.

이용기 기자

날씨어때

28일 구름조금 18℃ ~ 31℃	29일 구름조금 23℃ ~ 28℃
30일 구름조금 20℃ ~ 27℃	31일 구름조금 17℃ ~ 28℃

우리지역 우리신문 영천신문 등록일자: 2011년 11월 16일
등록번호: 경북 D01416

발행인: 박중운 편집인: 이용기 인쇄인: (주)중앙일보
취재부: 338-7100 광고부: 332-2400 FAX: 335-6600
구독료: 1년 4만원, 3개월 1만원 경상북도 영천시 아사동 보목2길 3
E-mail: licyj4@hanmail.net
계좌번호: 농협 301-0093-9954-51 (주)영천신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영천인근
최대규모
대단지

영천 햇빛촌마을
전원주택 부지분양

전용산책로까지 **3**분! 영천시청까지 **6**분! 이마트까지 **9**분!

분양 위치 | 경북 영천시 오마동 산 120-15번지 일대
분양사무실 | 문내동 3-23 (영천중학교 앞)

분양문의 | 054) **331-0085**